

파종협의회장 정기총회



파종협의회의(會長:權仁塔)는 지난 2018년 10월 27일(토) 11시에 충북 제천시 시에 있는 세명대학교에서 제14차 정기총회(定期總會)를 개최하였다. 권인탑 회장을 비롯해 권계동 고문, 권오의 대종회(안동) 부총장과 제천종친회 권영수 고문님, 권기현 부회장, 권철자 부녀회장, 권성유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안동권씨 15개파 파종회장 부회장 등 40여명 참석하였다.

권기원(별장공파) 총무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 되었다. 국민례, 시조묘소 망배, 상음례(相揖禮)를 하고 회장이 내빈(來賓)을 소개하였다. 권인탑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천종친회에서 이번 회의개회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과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권계동 파종협의회 고문(顧問)은 축사를 통하여 오늘 개최되는 14차 총회를 진심(眞心)으로 축하하며, 지난

2011년도에 출범한 협의회가 오늘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회고(回顧)하며 파종협의회의가 종중(宗中)의 발전과 번영(繁榮)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強調)하였다. 제천종친회 권영수 고문은 환영사(歡迎辭)를 통해 유서 깊은 이곳 제천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歡迎)한다고 말하고 특히 민승 권영우 박사의 자취가 서려있는 이곳 세명대학에서 파종협의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제천에 있는 우리 족친(族親)들도 모두 안동권문의 일원으로 문중(門中)의 발전(發展)에 적극(積極)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인사말과 축사가 끝나고 권기원 총무의 경과보고와 권영동 감사대신한 동정공파 권오수 회장이 감사보고를 하고 결산(안)과 규정개정(안)의 4건을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滿場一致)로 통과 시켰다. 기타토의에서 지난 회의 때 언급한 정자평가(正字評) 선조의 지식비의 제막식

과 고유제를 11월 4일 11시에 정조공파조 단소 맞은편에서 거행하니 협의회장단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하였다. 12시 20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세명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점식을 먹으면서 시종일관(始終一貫) 화기애애(和氣藹藹)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情談)을 나누었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세명대학교의 설립자인 권영우 박사의 민승기념관(民承記念館)을 관람(觀覽)한 후 기념관 뒷동산에 있는 민승의 묘소도 찾아 고인(故人)을 추모(追慕)하고, 참배(參拜)하였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주차장에 둘러서오는 11월 21일 시조 추향에 각 파종회 별로 독려해 많은 제관이 참제(參祭)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앞으로 15개 파종회가 화합(和合)하고 단결(團結)하여 종중의 발전(發展)에 더욱 더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총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해산(解散)하였다. <안동부총장 권오익>

고려증기소침사 권정평 지식비 고유제 봉행

정조공파종회(正朝公派宗會: 회장 권인탑)는 11월 4일 오전 11시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정조공파 파조단소 맞은편에서 고려태자소침사(高麗太子少詹事) 권정평(權正平)의 지식비(誌石碑) 제막식(除幕式) 및 고유제(告由祭)를 봉행(奉行)하였다. 권계동 대종회 고문을 비롯하여 권오훈 대종회 문헌편찬위원장, 권영완 안동권씨대종회 편집국장, 정조공파 권기만, 권오탁, 권기룡 세 고문, 권오창 종파 회장, 권영진 부총장공파 회장, 권기호 북야공파 회장, 권병윤 부정공파 회장, 권오국 전 태사모관리위원장, 권정창 대종회 제례위원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순택 정조공파 주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막식에 앞서 고유제는 상례(相禮) 권계동(權啓東), 초한관 권인탑(權仁塔), 아현관 권병운(權炳潤), 종현관 권영근(權寧根), 축 권혁인(權赫寅), 잔사 권정창(權正昌)이 각각 맡아 1시간에 걸쳐 봉행하였다. 고유제가 끝나자 권계동 고문, 권인탑 파종회장 등 14명이 7명씩 짝반으로 나눠 권정평 지식비의 커튼 끈을 당기는 제막식을 가졌다.

총예산 2천여만 원을 들여 중앙의 지식비(誌石碑) 오른쪽에는 권정평 묘지명(墓誌銘)의 출토내역을, 왼쪽에는 묘지명에 쓰인 어려운 한자의 내용을 한글로 해석해 놓았다. 중앙의 지식비는 가로 80cm 세로 60cm 두께 20cm 크기의 오석(烏石)으로 만들어 묘지명 원본의 글을 새기고 비석위에 옥개석(屋蓋石)으로 덮어 놓았다. 오른쪽 비는 고려중기의 문관 권정평(1085~1160)의 묘지명을 실물대(實物大)로 복제하여 새기고 그 역문(譯文)을 더하여 세웠다. 왼쪽 비는 묘지명에 있는 해서체 24행(行)을 모두 한글로 번역해



놓았다. 이 묘지명은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대원리 천화사(天和寺)터 동쪽 산줄기에서 출토되었고 2009년 경남 진주시 소재 토지주택공사 박물관에서 구입, 수장(守藏)하여 세상에 그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춘천 한림대 사학자 김용선 교수가 사학연구 제100호에 발표한 논문(새 고려 묘지명 7집)에서 상세히 발표되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 묘지명을 국보로 분류하였고 박물관과 학계에서는 고려시대 12공도(公徒)의 사회적 기능을 연구할 귀중한 정보와 사료(史料)로 평가하며 향리(鄉里) 출신이 고려중기 문벌귀족사회에서 여러 단계의 과거를 통해 중앙관이 되는 과정에 대한 명료한 설명의 고증자료가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안동권씨로서는 선대의 씨족사를 바꾸어 놓은 획기적 사실(史實)이 되고 있다.

고려 선종 2년(1085) 안동의 전형적인 향리가문에서 출생한 권정평은 그 향리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약관의 나이에 향시(鄉試)를 치른 뒤 서울로 올라가 남산도(南山徒)의 강신재(講信齋)에 들어가 학업을 닦았다. 남산도는 고려시대의 이른바 사학(私學) 12도(徒) 중의 하나였

북야공파조 추향 봉행



북야공파종회(會長:權奇浩)는 지난 11월 9일(陰10月 2日) 10시 안동시 서후면 교리 파조단소에서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정2품) 상장군(上將軍)이었던 휘(諱) 수흥(守興) 북야공파 조부군(僕射公派祖府君)의 추향(秋享)이 경향까지(宗鄉各地)서 모인 200여명의 파친(派親)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 되었다.

집사분정(執事分定)은 초한관(初獻

官) 서주공계 권영규(權寧奎, 강릉), 아현관(亞獻官) 예천공계 권도연(權度延, 서울), 종현관(終獻官) 관서공계 권오국(權五極, 안동)씨가 선임(選任)되었고 축(祝)은 서주공계 권혁모(權赫模) 잔사(贊者)는 관서공계 권혁창(權赫昌)으로 정하였다.

이날 헌성금(獻誠金)은 권영규(權寧奎:初獻官) 100만원을 비롯해 권도연(權度延, 亞獻官), 권기호(權奇浩) 파종회장, 상감계종중(尙檢系宗中), 대구파종회(大

邱派宗會) 영덕대부문중(盈德大夫門中) 감정공종중(監正公宗中), 권영수(權寧守, 안동) 각 20만원씩, 대사성종중(大司成宗中) 예빈공영화계, 함전종친회, 사맹공문중(同盟公門中), 안분당문중(安分堂門中), 권오국(權五極:종현관), 권영호(權寧鎬, 부산), 권봉환(權奉煥, 대구), 권오승(權五昇, 서울), 권재덕(權載德, 진주), 권영수(權寧守, 제천), 권기태(權奇兌, 제천), 제천부녀회장 권정자, 권재현(權載賢), 권석호(權錫浩, 합천), 권영옥(權寧玉, 합천) 권영득(權寧得, 齋有司), 권헌준(權憲俊, 齋有司), 권기덕(權奇德, 齋有司), 권오의(權五翼, 안동), 권경락(權景瑤, 서울) 각 10만원씩, 권영득(權永錄, 齋有司), 권갑현(權甲鉉, 합천), 문필문중 권오섭(權五燮), 권혁열(權赫烈, 齋有司), 권기억(權奇億, 齋有司) 각 5만원으로 총 475만원의 誠金이 담지(逕至)되었다.

특히 파내 청장년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참제관들께 차를 대접(待接)하고 제주 운반과 종식 배식, 음복 등 봉행(奉行)에 많은 일을 도왔으며, 이날 하루도 송조이념(崇祖理念)의 고취(鼓舞)와 파족간(派族間)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는 뜻 깊은 하루가 되었다. <파종회 사무국장 권오익>

추밀공파 창화공 추향제 봉행

창화공 권준(權準, 14세)의 추향제가 지난 10월 28일(일)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에서 참제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초한관 권형창, 아현관 권승열, 종현관 권병택, 축관 권병선, 잔사 권영부로 분정하였다. 묘소는 비무장시대 초입인 전진교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2인승 버스 1대가 출발하고 평택에서 대형버스 1대와 수십 대의 승용차로 참제원들이 당도하여 오전 11시에 추향제를 올렸다. 추향제를 지내는 동안은 비가 오지 않은가 싶더니 끝나자마자 천둥 번개와 함께 세찬 비가 내렸다. 참제원들은 창화공 추향제 때는 늘 이런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창화공 권준의 묘는 1990년까지만 해도 실전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도굴분으로 신고된 묘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곽 내부에 벽화가 그려진 고려시대 벽화 묘소임이 세상에 알려졌고 출토된 묘지석을 근거로 창화공 권준의 묘임이 밝혀졌다. 묘의 내부 석곽은 장방형의 평면구조로 동서북 3벽 내면과 문비석 내면에 각각 인물상이 그려져 있고 전장석 중앙에는 성진도(星辰圖)가 그려져 있었다.

창화공의 묘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청주한씨 문중에서 600여 년 동안 관리해

왔다 한다. 두 기의 묘가 앞뒤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뒤의 봉분은 한상질의 묘이고 앞의 봉분은 한상질의 부장품이 묻힌 부장묘로 알려져 왔다고 한다. 도굴꾼들은 이 부장묘를 도굴하다 뜻밖의 벽화가 그려진 묘임이 드러나자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묘소임을 직감하고 누군가에 의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신고 되었다. 출토된 묘지석을 조사한 결과 도굴꾼은 한상질의 부장품 묘가 아니고 창화공 권준의 묘로 밝혀지게 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화공의 묘로 밝혀진 이후 안동권씨 창화공 종중에서는 역사적인 묘비를 세웠다. 현재는 묘역 주변에는 청주한씨 문중에서 조선시대에 세운 작은 묘비와 1990년대에 세운 큰 묘비와 함께 3개의 묘비가 그대로 나란히 서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이 궁금하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이후 명나라에 국호를 정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사신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이때 한상질은 '조선'과 '화령'이라는 두 개의 안(案)을 가지고 명나라에 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온 인물이다. 또한 한상질은 청주한씨이며 한명회의 할아버지이다. 뿐만 아니라 한상질은 창화공 권준의 둘째



앞의 큰 묘비와 그 옆의 작은 비석은 청주한씨 문중에서 세운 묘비이고, 뒤의 묘비는 안동권씨 창화공 종중에서 세운 묘비이다. 또 앞의 봉분은 창화공 권준의 묘이고 뒤의 봉분이 한상질의 묘이다.

아들 권적의 사위 한수의 아들이기도 하다. 고려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사망하자 자제위를 설립해 그 허전함을 달래다 흥륜과 최만생 등에 의해 암살되었다. 한나라의 군주를 암살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때 창화공 권준의 증손자인 권진이 공민왕 시해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집안은 준비박산이 났다. 형제들은 몸을 숨기기 위해 뿔뿔히 헤어졌다. 창화공의 제사도 지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청주한씨 문중에서 사돈 집안이자 한상질의 의가 어른의 묘 바로 뒤에 한상질의 묘를 써서 제사 등을 지내고 묘를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창화공 권준의 묘는 파주시 향토유적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다. <편집국장 권형완>

정조공파대구파친회 시조묘소참배

정조공파대구파친회(회장 권혁寅)는 지난 10월 27일 회원 및 가족들과 함께 안동시 서후면 성곡동(陵洞)의 시조 태사

공의 묘소를 참배하였다. 권혁인 회장은 시조 태사공의 묘역은 천하에 비길 데 없는 뛰어난 지세의 명

답이며 오래도록 잃었다가 평창군사(諱雅)께서 우리시조 할아버지의 능묘를 찾으신 후로 춘추로 제사를 공손히 올리고 있어서 우리 권문이 시조(始祖) 묘소를 잘 모시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남중공의 단소에도 다 함께 참배했다. <총무 권혁성>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 2018년 9월부터 종보 대금 지로용지(1년 3만원)를 발송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예금계좌 : 농협 301-0235-6546-41(안동권씨 대종회)
-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